

2017년 5월 26일, 조천읍 대흘1리 대흘1리노인회관, 강수경 조사.

제보자1: 강인홍(남, 1933년생, 조천읍 대흘1리)

제보자2: 부영옥(남, 1949년생, 조천읍 대흘1리)

- 줄거리: 옛날 와산리 심방이 교래리 당에 가서 굿을 하고 오다가 눈에 파묻혀서 죽었다. 한 어른이 아들과 함께 명절을 지내려고 교래리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심방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다. 그 어른은 죽은 사람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지나왔다. 지나간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왜 죽은 사람을 때리냐고 물었다. 옛법에 죽은 사람을 처음 본 사람은 때리거나 차서 지나가야지 안 그러면 본 사람이 좋지 않다는 거였다. 집에 와서 와산리 심방 아들에게 아버지가 원물 앞에서 죽어 있다고 알려주었다.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다가 묻었다.

**[제보자1]** 경 헌디이 옛날엔 와산에 심방이 큰심방이 있어났는데, 저쪽 부락에. 그 하르방이 그 교래 당에 간 오단 설달 그물어갈 때 간 오단 눈에 벙형 저 원에서 죽어 불었주게. 게난 동카름 동규허고 예비아덜이 멩질 제 보레 교래 산 때난 내려오단 보난 하르방은 죽언 질레에 7만이 자빠졌거든.

게난 하르방은, 그 동규아방은 옛 하르방이난 오단 뉘이난 이놈우 새끼 어디 뉘이엔 헤연 그 죽은 걸 발로 막 차불멍 헨. 그 쳇번 본 사름은 막 뜨린덴 허데. 옛날 말로는, 쳇번 발견 헨 사름은 거 뜨리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좋지 안헌다고 그래부니까. 그 사람을 귀똥베길 때리던가, 발로 차던가 경 헤팅 지나간덴. 지나간 사름이. 경 헤부난 그 하르방은 그걸, 그 하르방은 그디 죽어 잇이난 이젠 귀똥베길 뜨려된 가가난 아덜은 이젠 그디 넘어가난.

“무사 죽은 사름을 뜨렸우과?”

그 아덜은 이제 지금 살앗주게. 지금도 있어. 하르방은 죽어불곡. 경 헨 이젠 집이 오란, 이젠 와산 오란, 경 행 아덜신디 간.

“아방 죽었저.”

죽어부난 못 좇으카부덴. 이만저만허연 원물 앞이 죽언 잇이메 간 보렌 허난. 간 보난 지네 아방이난 좇아당 그때 묻으멍 헤낫어게.

그땐 막 추워부난 차도 엇곡 허난, 걸언 내려갓단, 걸언 그 교래, 심방허는 하르방이난 그 당긔허레 갓단 곱헤 된 노려오단 와산허곡 대흘 새 훈 이삼길로 차이백이 안 뉘어이. 게난 그땐 걸어뎡길 때난게. 오단 그디서 죽어부난. 헐 수 엇이 그냥 그 하르방 노려오단 보난 죽엇이난 귀똥베기 딱런 헤부나네, 말짖 아덜이 앓어단 묻엇주게.

경 허고 또 채웁이엔 하르방은 그땐 눈이 많에부난 노루 잡으레 갓단 노룬 걸머전 죽엇어. 노루 걸머진 양 가지도 오지도 못허곡 눈에 벅혀부니까. 겐 걸머전 이젠 죽어부난 그 하르방도 좇아당 묻으멍. 그땐이 옛날은이 차 엇곡 뭐 헐 때니까 우린 그때 아은 때주게. 우린 그때가 열아홉 솔 때인가. 아으나 마찬가지로.

**[청중]** 훈 육십년 세월이네.

**[제보자1]** 훈 육십년 세월이 흘런.

**[제보자2]** 노루 잡아, 걸머졌덴 헌 말은 배낭식으로,

**[제보자1]** 으응. 배낭식으로. 노루 걸머진 거주게.

**[제보자2]** 노루를 멜빵 끈 메어가지고 지엇다는 거주.

**[제보자1]** 잡안, 잡아지난 이젠, 집이 앓아강 잡앙 먹젠, 걸머지난게 눈은 콧 박으난게 가지도 오지도 못허난게 거기서 죽어불언.

**[조사자]** 아까 와산 심방 성씨 알아지쿠가?

**[제보자1]** 김가. 김신천이라고. 옛날 심방. 그 하르방이 젤 큰 심방이랏어.

- 핵심어 : 심방, 죽은 사람, 하르방, 노루, 와산리